

## I. 動向과 展望

### 1. 원貨 換率 700帶 進入?

- 動向: 원貨 換率 800원 수준에서 동락 거듭
- 展望: 연말 790-795, 95년 말 775-785
- 10月中 700帶 進入 豐想

#### ○ 動向

- 원화 환율은 9월 들면서 800원 수준에서 동락을 거듭하고 있음
- 지난 17일에 한때 799.7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곧 800원대로 반등하였고
- 800원대의 환율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
- 800원 수준의 환율은 지난 1월과 비교하여 약 1% 정도 절상한 것임
- 94년 1월 8일: 813.4 최고치
- 9월 17일: 799.7
- 9월 23일: 802.8 (폐장가)

	93.12	94.1	2	3	4	5	6	7	8	9.1-22
평균 환율	809.4	810.5	809.2	807.5	808.6	806.5	806.6	805.1	803.5	800.7

#### ○ 원貨 切上의 原因

- 94년 1-8월中 원貨가 切上한原因是
  - 資本收支의 黑字에 따라 달려 공급이 풍부해졌기 때문임
  - 지난 1-7월中 경상수지는 약 11.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가 32.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총 26억 달러 규모의 달러가 초과 공급되었음
- 9월 1-17일 중 원貨가 強勢를 보인原因是
  - 기업들이 추석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 관련 달러를 조기에 매각했고
  - 환율 절상을 예상하여 수입 결제를 지연하고 및 수출 관련 달러를 조기에 매각함으로써
  - 달러가 초과 공급되었기 때문임

-22-23일: 800대 회복

- 22일 이후에는 수입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급증하여 800대로 회복되었음

### ○ 원貨 換率 展望

-원화 환율이 700帶로 進入하는 時期는 10월中일 것으로 전망됨

- 10월 중에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
- 무역수지가 10월부터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
- 달러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환율이 700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
-年末 換率 790-795, 95년말 775-785 수준으로 展望됨

- 연말까지 원화의 추가 절상 규모는 달러당 약 5-10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
(4/4 분기 해외 자본 순유입 규모가 최소 30-4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)
- 95년도 환율은 대체로 775-785 수준(연말 기준)으로 전망되고 있음

	현대	삼성	대우	력금	기아	KDI	KIET	매경	WEFA
95년말	785	785	789	775	780	777	785	777	785

### ○ 輸出 業種別 影響

- 換率이 780 水準으로 切上하면 엔高 效果 消滅
- 現 換率 水準에서 輸出 採算性이 있는 業種은 油化와 船舶뿐임
- 換率 切上으로 輸出에 심한 타격을 받는 業種은 輕工業과 家電임
- 油化는 換率이 크게 切上될 경우에 採算性 悪化가 우려됨
- 自動車는 對美國車 競爭力 弱化 豐想
- 造船分野 換差損 우려

-무역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원화 환율이 780 수준으로 절상할 때 엔고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음

- 엔화 환율이 100엔 수준으로 절상한 것은 무역수지에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궁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, 원화 환율 780 수준으로 절상할 때 무역수지가 약 10억 달러정도 악화되어 엔고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됨

- 다음은 엔화 환율 100과 원화 환율 780을 가정하였을 때 업종별 영향을 정리한 것임

- 경공업: 수출증가세 유지 어려움

- 경공업부문에서는 원화 환율이 절상을 시작한 89년 이후 수출 증가세가 대폭 둔화하여 92년과 93년에는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
- 94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5% 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원화 환율이 800에 근접하기 시작한 7~8월 중에는 증가세가 3% 정도로 둔화되었음
- 환율이 700원대로 진입하면 경공업 수출은 다시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임

- 유화: 원고의 영향이 아직은 크지않지만 원화가 큰폭으로 절상할 때에는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

- 전자: 가전제품의 타격이 클 전망임

- 가전은 일본 가전업체들이 해외생산으로 엔고를 극복하고 있어 엔고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고 있음
- 원화가 추가로 절상되면 93년부터 증가세를 보인 가전제품 수출에 타격이 클 것임

- 자동차: 원화 절상으로 대 미국차 경쟁력 약화

-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차와의 가격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
- 원고로 인해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미국차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

- 선박: 원화 절상으로 환차손 우려 심각

- 선박은 계약 체결후 선박 인도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리므로 환차손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
- 선물환 등 환차손회피 수단이 없을 경우, 연간 선박 수출이 약 40억 달러이므로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최고 400억 원의 환차손 발생

- 업종별 적정 환율 수준

	전품목	경공업	유화	철강	콘테이너	전자	가전	자동차	선박
적정환율	810	810~820	804	811	807	808	814	806	803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「원화 절상의 무역에 대한 영향」, 94.7.

(한상완)

## 2. 美國 貿易 赤字 7년만에 最大 規模

- 지난 7월 美國 貿易 赤字는 109.9억 달러로 史上 두번째 큰 數值 기록
- 미국경제에 대한 赤信號로서, 中間選舉를 앞둔 클린턴 행정부에 부담
- 長期 趨勢 變化는 아니며, 特殊 要因에 의한 一時的 현상으로 보임
- 美日포괄무역협상, 그리고 달러貨 등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

### - 최근 貿易 赤字 急增:

- 7월 美國 貿易赤字는 109.9억 달러로 6월의 貿易赤字 90.4억 달러보다 21.6% 增加
- 금년 7월말까지의 赤字 累計値는 621.8억 달러로 前年 同期 對比 52% 增加
-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의 貿易 赤字는 1,458억 달러로 展望되며, 이는 87년이후 7년만에 最大 規模

### - 意味:

- 뚜렷한 景氣 回復 추세를 보이고 있는 美國 經濟에 다시 赤信號
- 11월 中間選舉에서 經濟回生을 선거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에 커다란 부담

### - 原因 및 對策:

- 美商務省은 이러한 赤字 急增이 長期 趨勢의 變化에 起因하는 것은 아니며, 항공기 수출 부진 등 몇가지 特殊 要因에 의한 一時的 현상이라고 설명
- 하지만 한편으로는 固着化된 무역 적자의 심각성을 認識, 向後 경제정책의 焦點을 무역 적자 規模縮小에 두기로 함
- 예상되는 對策으로는 對日무역협상의 早速妥結, 달러貨의 追加切下, 미국 輸出 產業의 支援, 독일 등 주요 黑字國의 市場開放 촉구, 中進國 및 開途國의 貿易慣行改善 등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오던 것들임
-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低달러 정책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부진과 서민생활의 악화만 야기했다고 비판하며, 보다 根本的이고 劃期的인 戰略樹立을 요구

### - 波及 效果:

- 현재 진행중인 美日包括貿易協商에서 미국側의 立地를 더욱 좁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의 强硬立場 고수로 協商妥結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
- 달러貨 弱化: 지난 20일 이미 97円대로 急落했으나 앞으로 95円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
- 韓國에 대한 通商 壓力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

(김 옥)